

## 和合과 團結로 危機克服의 슬기를

鄭 溶 文 三星電子(株) 情報通信部門 社長 / 本會 非常勤 副會長



庚午年 새해를 맞아 電子工業振興會 회원사는 물론 전국의 전자 관련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사업이 이 날로 번창하시고 家庭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접어든 '90 년대는 우리나라에서도 情報化社會가 成熟期를 맞는 한 세대가 되기를 祈願합니다.

지난 '80년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혁이 이루어졌으며 產業界에서도 量的인 成長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도 高級化가 實現된 시기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情報通信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더 큰 成長을 實現한 시기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 같습니다.

'80년대초만 해도 완전히 외국에 의존해야 했던 情報通信技術이 이제는 自立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대열에 들어섰다고 自負해도 좋을 만큼 發展했으니 말입니다.

情報通信의 核心이라 할 全電子 交換機와 각종 端末機는 물론 컴퓨터와 周邊機器가 순수한 國內技術로 開發되고 光通信 製品의 量産化가 實現되어 自給의 단계를 벗어나 世界시장에 進出하고 있습니다.

1家口 1電話가 실현되고 全國電話網이 自動化되었으며, 行政·教育·金融·國防·公安 등 각분야의 電算網이 착착 構築되고 공장이나 사무의 自動化도 急速히 擴散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뉴미디어의 개발과 活用이 무척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간 취약 부분이었던 소프트웨어 開發에서도 急進的인 發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情報通信 분야의 製造 및 서비스 업체들은 이제 國內市場에서만으로는 더이상 成長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國內市場이 狹小한 것 외에도 先進國이 市場開放 壓力 등으로 우리의 製品이 國際 競爭力을 갖추지 못한다면 살아남기조차 어려울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與件 외에도 국내적으로는 각계 각층의 재물 찾기 욕구분출과 함께 원高·임금高·原資材高等 經營 壓迫 要因들이 散積해 있으며 國際적으로는 經濟의 블럭화, 先進有數業體들의 技術移轉 기피 현상, 知的 所有權 행사도 그 強度를 더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동남아 지역 現地 工場 進出은 우리나라로서는 後進國과의 技術隔差를 더욱 縮小시키는 結果로 나타나고 있어 위에서는 先進國의 壓力이, 그리고 아래로는 後進國의 맹추격이 계속되어 우리가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狀況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電子業界로서는 國內業體끼리는 競爭의 對象이 아니고 先進業體와 後進國의 追擊業體가 바로 우리의 競爭者임을 共同으로 認識하여 和合과 團結로 슬기롭게 對處해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